

침수예방 · 주거환경개선 기대

군산시, 원도심 · 옥서면 일원 689억 원 투입 대대적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군산시는 원도심 및 옥서면 일원에 총사업비 689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근대문화유산이 분포되어 있는 원도심 일원 및 옥서면 지역에 대해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침수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과 하천 및 해양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2017년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선정된 원도심 일대의 중앙분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0년까지 하수관거 정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옥서면 옥봉리·선연리 일원의 옥서지

구는 3월 착공할 계획이다.

또한, 침체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동에 위치한 영동상가 주변으로 오수관로 2km, 배수설비 200여 개소를 우선 정비하기 위해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흥남동과 중앙동 일원의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2019년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하수관거 정비가 완료되면 시가지 침수예방은 물론 생활오수와 우수를 분리함으로써 각 가정마다 정화조 설치 필요성이 낮아져 분뇨 수거비

를 절감할 수 있으며, 또한 우수를 하천이나 해역으로 방류하고, 오수는 기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 방류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해 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이 향상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하수관거 정비로 집중호우 시 도시침수 예방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국비확보를 통해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



군산시 평생학습관 강좌는 성인, 어린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2월 19일부터 5월 12일까지 12주간 운영되는 66개 강좌와 만 6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2월 19일부터 7월 7일까지 20주간 운영되는 6개 강좌로 구분된다.

군산시 평생학습관, 정규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2월 1일부터 9일까지... 72개 강좌 1350명 선착순

군산시 평생학습관은 오는 2월 1일부터 9일까지 2018년 정규 프로그램 72개 강좌 수강생 13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강좌는 성인 어린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2월 19일부터 5월 12일까지 12주간 운영되는 66개 강좌와 만 6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2월 19일부터 7월 7일까지 20주간 운영되는 6개 강좌로 구분된다.

기존 수강생들의 심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언어 중급 과정을 추가하고, 힐링 꽃 그림 SNS 활용 스마트하게

하기 등 개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6개 강좌를 신규 개설 및 재편성하였으며, 만 65세 이상 시니어 강좌에는 치매 예방 관련 강좌를 포함한 3개 강좌를 신규로 개설하고, 학습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 12주 학습기간을 20주로 변경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군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1인당 2강좌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수강료는 3만원(재료비 및 교재비는 별도 부담)이다.

수강신청은 평생학습관 방문 및 군

산시평생학습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모집 정원에 미달한 강좌에 한해 개강 전까지 추가 접수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평생학습정보망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평생학습관(☎454-5980~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고대성 인재양성과장은 “2018년도 프로그램 또한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배움과 나눔을 통한 학습 공동체 활성화로 품격 있는 평생학습도시 군산시를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

새만금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 공업용수 공급사업 추진

군산시는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새만금 공업용수 공급사업을 오식도 배수지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군산시는 국가산업단지 내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오식도 배수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새만금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 시 기존배수지의 공업용수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여, 지난 2012년 새만금 산업단지 전용 공업용수 공급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 240여억 원을 전액 국비로 확보해 산업단지 조성완료 전까지 입주기업의 공업용수 공급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5년 1월 새만금 산업단지 전용 공업용수관 2.58km를 우선 설치하여 현재 새만금산업단지에서 입주한 도레이 첨단소재, 솔베이, CCSE 등에 하루 평균 1만2,000여 톤의 공업용수를 우선 공급하여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 8월부터 새만금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3만2,000 톤 용량의 전용 새만금배수지 건설 사업을 착공하여 2018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공이 되면 시험 가동 후 하반기부터 새만금배수지를 운영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군산=김판곤기자

홍성각 제일산부인과 원장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 쾌척

익산사랑장학재단에 지역 양성을 위한 따뜻한 정성이 모아지고 있다.

익산시 남중동에 위치한 제일산부인과 홍성각 원장은 22일 익산사랑장학재단에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300만원을 쾌척했다.

홍성각 원장은 평소 바쁜 병원 일에도 불구하고 익산사랑장학재단 이사직을 맡아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활동을 펼치는 등 익산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으며, 지역 의료발전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홍 원장은 “보다 많은 지역인재들이 마음 놓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조성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장학재단 관계자는 기탁해 주신 장학금을 소중하게 사용하여 잘래에 익산시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익산사랑장학재단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왕원기자

평화통일 · 종교 공공성 구축 도약 계기 마련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 2차 공동 콜로키움 개최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차 공동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지난 19일 원광대 WM관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연구 인력과 연구정보를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박병수 원장은 “근대 한국종교 공공성 재구축을 위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종교의 공공성에 담보된 평화의 가치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 연구자들이 대거 포진된 서울대 측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근식 원장은 “종교와 평화의 문제는 뗄 수 없는 관계이므로 양 기관의 연구역량을 총동원하여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앞으로 연구원 차원의 협력체계를 넘어 양 대학 간 협력체계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이자”고 제안했다.

양 기관은 지난해 12월 서울대 통

일평화연구원에서 개최한 제1차 공동 콜로키움을 통해 평화운동에 관한 영국의 실례와 3.1운동에 나타난 종교의 공공성의 측면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날은 업무협약과 함께 제2차 공동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콜로키움에서는 원영삼(원광대 정역원) 교수가 ‘원불교의 평화 운동을 주제로 원불교에서 어떠한 이념하에 평화운동을 전개하였는지를 발표하고, 김병로(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가 북한 기독교의 현황과 의미’를 주제로 북한에서의 종교의 공공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데 이어 토론이 펼쳐졌다.

한편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은 2016년 한국재단에서 인문사회분야 대학중점연구소로 선정돼 6년 동안 ‘근대 한국종교의 공공성 재구축’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문명의 대전환기에 근대 한국종교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를 분석해 궁극적으로 한국종교와 문명에 대한 미래지향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익산=장왕원기자

익산시, 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홍보’ 펼쳐

산업활력 경제도시 익산시(시장 정현웅)가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열성적이다.

정현웅 익산시장은 황금개의 해 무술년을 맞이하여 22일 남산면 소재 영패선(주)을 방문하여 새해 새로운 희망으로 귀금속 산업의 부흥을 꿈꾸는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고자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펼쳤다.

이번 현장행정은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과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 자금을 홍보하고, 귀금속 업체 근로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정현웅 시장은 영패선(주)의 대표인 최상선 대표에게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생산현장을 둘러보며 근로자들을 격

려하고 근로자들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영패선(주) 최상선 대표는 “시장업무로 바쁘신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열한 귀금속 업체를 방문하여 근로자들의 시기와 자존감을 상승시켜주 감사하다”며 정현웅 시장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정현웅 익산시장은 “국내의 경기 침체 등 어려움이 많은 경영 여건에서 속에서도 익산의 귀금속 산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영패선(주) 관계자에게 감사드리고 시와 기업 간 소통으로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패선(주)은 1999년 중국으로 해외이전하였다가 2014년 국내 복귀한 기업으로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생산하는 기업이다.

/익산=장왕원기자

어린이 행복동행

평화·꿈을 갖는 동북아경제추진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꿈꾸는 도시 군산

www.gunsan.go.kr